



건강을
지키는 현장

무료건강검사 확대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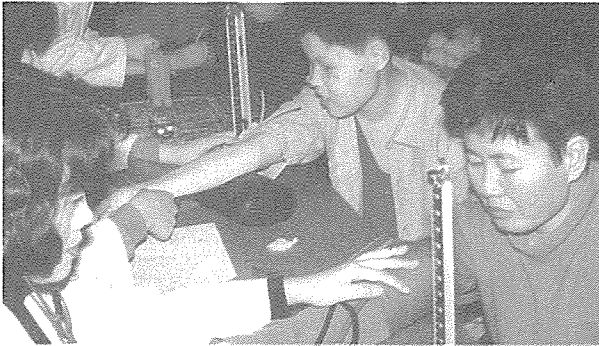
건협 서울지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무료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가 지난 해 11월 한달 동안, 성노원 아기집·삼성농아원·은성기술원 등 10개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사를 실시해 추운 겨울을 따뜻한 이웃 사랑으로 훈훈하게 해주고 있다.

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무료검사에서는 670여명의 아동·장애인·부녀자 등이 검사를 받았다.

매년 다양한 무료검사사업을 실시해 온 건협 서울지부는 앞으로 이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무료검사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협 서울지부는 이번 무료검진에서 670여명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 “건강”은 인간생활의 기초이며, 최고의 소망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던 11월. 복지시설 수용자 무료 건강 검사를 위해 보육원 마당에 도착한 건협 검진팀은, 호기심에 가득 차 주위를 맴도는 아이들의 눈길과 마주쳐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은 하얀 가운을 보고는 그만 도망쳐 버린다. 아이들은 어쩌면 빵과 음료수, 옷 등등을 가지고 찾아 올 언니·오빠를 기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건강”은, 당장 눈에 보이는 빵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므로.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또 더러는 용기백배해서 당당히 걸어와 팔뚝을 내미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 장애복지시설을 찾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모여들던 장애인들의 모습 등을 보며 검진팀은 이렇게 무료검진에 나서길 잘했다는 생각을 잠시 해 본다.

● 아동·부녀자·장애 복지시설 수용자 670여명 검사

이번 무료검진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무료검사와 보건 교육을 통해 건강생활을 유도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토록 함으로써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수용생활을



사회 어느 곳보다도
건강검진이
필요한 곳이지만
여건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무료검진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건협 서울지부는 이번 무료검진 실시를 위해 특별 검진반을 구성하고, 11월 한달 동안 주 2~3회 정도씩 해당 기관을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진에서는 성노원 아기집, 청운보육원, 강남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184명, 은성기술원, 자매복지회관 등 부녀복지시설 수용자 60명, 삼성농아원, 남부장애복지관, 성모자애재활원, 교남소망의 집, 신아재활원 등 장애복지시설 수용자 428명이 검사를 받았다.

● 소변·간기능 검사 등 10여개 종목 실시

이번 검진의 검사 종목은 혈압·키·체중 등의 기초검사, 소변 검사, 간기능·고지혈증·혈당·신장·간염·심장질환·자궁암·기생충 검사 등이었다.

검사를 마친 건협 서울지부는 그 결과를 해당 복지시설에 통보해 주고,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편 이번에 무료검사를 받은 복지시설의 관계자들은,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사가 어느 곳보다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여건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건협 서울지부와 같이,
가진 능력 속에서
작으나마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세상은
외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상황에서, 전문 건강검진 기관인 건협이 이렇게 무료검진을 실시해 주시니 저희로서는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무료검진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 '95년부터는 서울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한편 건협 서울지부는 '95년부터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무료검사를 서울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상 인심이 옛날같지 않다는 것이,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복지시설을 찾는 손길도 눈에 띄게 줄었고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도 그다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요즘의 세태.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더욱 춥게만 느껴지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크지는 않지만 가진 능력 속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건협 서울지부와 같은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다짐해 본다. 이 작은 사랑이 언젠가는 큰 불씨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므로. 72